

## 2013년 중소기업 경영환경 전망과 임직원 교육수요 분석

- 최근 2년간 전경련 경영자문단으로부터 2회 이상 자문 받은  
중소기업(302개사)의 설문결과를 중심으로 -



# 목 차

## < 요 약 >

I. 조사개요 .....	1
1. 조사목적 .....	1
2. 조사대상 및 응답률 .....	1
3.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.....	1
4. 조사내용 .....	1
II. 조사결과: 2013년 중소기업 경영환경 전망과 임직원 교육수요 분석 .....	2
1. 2013년 중소기업의 매출액 전망 .....	2
2. 2013년 중소기업의 중점 경영전략 .....	2
3. 중소기업이 새정부에 바라는 제1 중소기업 정책과제 .....	3
4.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수요 .....	4
III. 시사점 및 정책제언 .....	7
1. 조사결과의 시사점 .....	7
2. 정책제언 .....	8
< 별 첨 > 「2013년 중소기업 경영환경 전망과 임직원 교육수요 조사」 결과(요약) .....	9
< 참고문헌 > .....	11

■ 이 자료는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자문단지원팀 김현석 연구원이 작성한 것입니다.  
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TEL : 02-6336-0612      FAX : 02-6336-0620      E-mail : hskim730@fkilsc.or.kr



## 요 약

### 1. 조사개요: 2013년 중소기업 경영환경 전망과 임직원 교육수요 분석

- 조사 기간 : 2013. 2. 8 ~ 2013. 3. 11(31일간)
- 조사 주관 :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
- 조사 대상 : 최근 2년간(2011~2012) 전경련 경영자문단으로부터 2회 이상 자문 받은 672개 중소기업 (총 자문업체는 2,370개사)중 302개 회신(응답률: 44.9%)
- 조사 방법 : 객관식 선택 및 주관식 서술을 통한 설문조사(전화조사와 이메일조사 병행)
- 조사 방법 : 2013년 매출전망, 경영전략, 경영애로 타개를 위한 정책과제, 임직원 교육 계획 등

### 2. 조사결과

#### 1) 2013년도 중소기업의 매출액 전망

- 지속된 국내 경기부진에도 응답 중소기업 10곳 중 6곳(61.9%)은 올해 매출액이 작년 보다 '늘어날 것이다'라고 생각하고 있음
- '많이 늘어난다'(18.5%), '약간 늘어난다'(43.4%) 등 매출이 전년보다 늘어난다는 응답이 61.9%이며, '작년과 비슷하다'는 24.5%, '작년보다 줄어든다'는 13.6%임

#### 2) 2013년도 중소기업의 중점 경영전략

- 중소기업들은 경영애로 타개를 위해 '기술혁신'(34.3%)과 '판로개척'(26.9%)에 역점을 두고 올해 경영전략을 수립·추진한다는 응답이 2/3(61.2%)를 차지함
- 기술혁신(34.3%)으로는 '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역량 강화'(22.4%), '공정 혁신·불량률 감소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'(11.9%)임
- 판로개척(26.9%)으로는 '자사제품에 대한 홍보강화로 국내마케팅 확대'(17.9%), 'FTA를 활용한 해외시장 적극 진출'(9.0%)임

#### 3) 중소기업이 바라는 새정부의 제1 중소기업 정책과제

- 응답 중소기업들은 새정부가 추진해야할 제1 중소기업 정책과제로 '중소기업 자생력 제고'(37.3%), '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화'(34.2%), '중소기업 보호관련 법·제도 개선'(27.9%) 順으로 요구함
- '중소기업 자생력 제고'를 위해, 기술개발 및 경영혁신(20.2%)과 해외진출 지원 (17.1%) 등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음

## 요 약

### 4) 중소기업 임직원의 교육수요

- ☐ 응답 중소기업들의 66.9%는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☐ 외부교육을 이용할 때, 중소기업은 실제 업무 적용가능성, 주제의 적절성, 커리큘럼의 질적 수준 등 교육내용을 가장 중시하고 있음
- ☐ 강의 진행 방식으로 중소기업들은 단순 지식전달보다 기업현장에 맞는 사례를 교육 참가자와 강사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토론식 교육을 선호함
- ☐ 교육을 희망하는 시기를 주간단위로 보면, '수요일'과 '금요일'이 각각 25.2%로 가장 많았으며, 휴일인 토요일의 경우는 16.6%가 희망함
- ☐ 외부 교육과정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'교육관련 예산부족'(38%), '업무 공백 우려'(36%)가 높은 응답비중을 보임
- ☐ 응답 중소기업들은 전경련 경영자문단으로부터 받고 싶은 경영교육 분야로 '마케팅'(21.5%)과 '기술·생산'(14.4%)을 가장 선호함

### 3. 시사점 및 제안사항

- ☐ 중소기업들은 기술혁신, 판로개척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 경기침체를 정면 돌파 하려는 적극성을 보임
  - 최근 FTA 체결 확대, 내수부진 여파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고려, 이를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는 데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됨
- ☐ 중소기업들은 법·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정책보다 중소기업 자생력을 중소기업 정책 추진을 새정부에 희망함
  -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 보호위주 정책보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앞섬
- ☐ 중소기업의 절반가량(48.8%)은 교육선택 시, 기업 실정에 맞는 교육주제 등 교육컨텐츠의 실용성을 가장 중시함
  - 특히, 사례연구나 토론 등을 통한 실제 업무와의 연관된 교육을 고려함

## 요 약

-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, 글로벌 시장 개척 등 중소기업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정부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함
  - (기술혁신 도모) 기술혁신 투자에 대한 성과측정을 강화하여 투자효과를 높이고, 중소기업 상호간의 기술교류 활성화 등 기술융합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 전반의 기술혁신 분위기를 창출해야 함
  - (글로벌 시장 개척) ‘생산시설, 기업연차, 기업규모, 수출증감’여부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실시는 한편,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R&D, 해외마케팅, 수출금융 등 전사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
- 중소기업에 시혜적 혜택보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함
  -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, 성장성 등을 고려해 성장단계별로 적합한 시책을 수립하고,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 효과를 높여야 함
- 중소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 실시 등 교육의 실용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
  - 중소기업별 교육수요 조사를 사전에 실시하고, 이를 토대로 실제 업무에 적용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동시에 업무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시간을 설정하는 등 중소기업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





## I 조사개요

### 1. 조사목적

- ☐ 국내 경기침체로 올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불투명한 가운데, 중소기업들은 기술력 미흡과 판매부진 등으로 경영애로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
- ☐ 이에 본 센터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금년 경영환경 전망과 중점경영전략, 교육수요 실태를 파악, 중소기업이 경영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

### 2. 조사대상 및 응답률

- ☐ 조사대상 : 최근 2년간(2011~2012) 전경련 경영자문단으로부터 2회 이상 자문 받은 672개 중소기업 중 응답한 302개사
- ☐ 응 답 률 : 302개사 회신(응답률 : 44.9%)

### 3.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

- ☐ 조사방법 : 객관식 선택 및 주관식 서술을 통한 설문조사
  - \* 이메일과 전화조사 병행
- ☐ 조사기간 : 2013. 2. 8 ~ 3. 11(31일간)

### 4. 조사내용(별첨 참조)

- ☐ 2013년 경영환경 전망
  - 2013년 매출전망 및 경영전략
  - 새정부에 바라는 제1 중소기업 정책과제
- ☐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 수요
  - 임직원 교육 계획 및 교육 선택 시 고려사항
  - 효과적인 강의 방식 및 교육시간
  - 희망하는 경영교육 분야 및 교육정보 취득 경로

## Ⅱ 조사결과: 2013년 중소기업 경영환경 전망과 임직원 교육수요 분석

### 1. 2013년 중소기업의 매출액 전망

- 지속된 국내 경기부진에도 응답 중소기업 10곳 중 6곳(61.9%)은 올해 매출액이 작년보다 '늘어날 것이다'라고 생각함
- '많이 늘어난다'(18.5%), '약간 늘어난다'(43.4%) 등 매출이 전년보다 늘어난다는 응답이 61.9%이며, '작년과 비슷하다'는 24.5%, '작년보다 줄어든다'는 13.6%임
- 올해 중소기업들의 이와 같은 낙관적인 경영환경전망은 박근혜정부의 '중소기업살리기' 정책기조에 대한 기대감<sup>1)</sup>이 크게 작용된 것으로 풀이됨

<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중소기업의 매출액 전망 >

(단위: %)



### 2. 2013년 중소기업의 중점 경영전략

- 중소기업들은 경영애로 타개를 위해 '기술혁신'(34.3%)과 '판로개척'(26.9%)에 역점을 두고 올해 경영전략을 수립·추진한다는 응답이 2/3(61.2%)를 차지함
- 기술혁신(34.3%)으로는 '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역량 강화'(22.4%), '공정 혁신·불량률 감소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'(11.9%)임
- 판로개척(26.9%)으로는 '자사제품에 대한 홍보강화로 국내마케팅 확대'(17.9%), 'FTA를 활용한 해외시장 적극 진출'(9.0%)임
- 그 밖에 '인력경영과 재무건전성'(20.2%), '성장로드맵 마련'(12.9%), '우수 인력 확보'(5.7%) 등을 중점 경영전략으로 생각함

1) 중소기업중앙회, 「2013년 1월 중소기업인이 바라는 “중소기업대통령”에 대한 의견조사(2013.1)」 결과, '최근 대통령 당선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행보'에 대해 응답 중소기업인의 95.3%가 “긍정적”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

○ 이와 같이 ‘기술혁신’과 ‘판로개척’에 대한 응답비중이 높은 것은 최근 FTA 체결 확대와 내수부진의 여파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<sup>2)</sup>, 이를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된 데서 비롯됨

< 경영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2013년 중소기업의 중점 경영전략 >

(단위: %)



### 3. 중소기업이 새정부에 바라는 제1 중소기업 정책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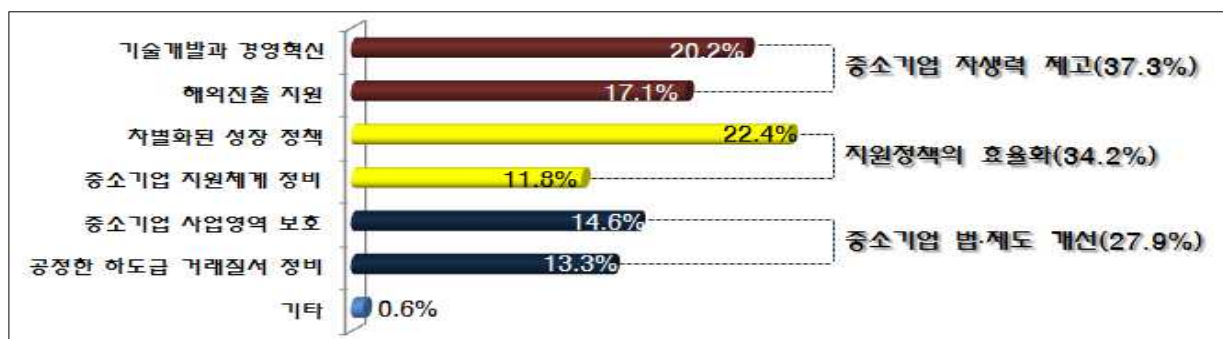
□ 응답 중소기업들은 새정부가 추진해야할 제1 중소기업 정책과제로 ‘중소기업 자생력 제고’(37.3%), ‘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화’(34.2%), ‘중소기업 보호관련 법·제도 개선’(27.9%) 順으로 요구함

○ ‘중소기업 자생력 제고’를 위해, 기술개발 및 경영혁신(20.2%)과 해외진출 지원(17.1%) 등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음

○ ‘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화’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성장정책(22.4%)과 더불어 지원체계의 정비(11.8%)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

< 중소기업이 새정부에 바라는 제1 중소기업 정책과제 >

(단위: %)



2)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, 「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계획과 애로실태(2012.3)」에 의하면, 응답 중소기업의 61.7%가 해외진출을 추진한다고 밝힘

#### 4. 중소기업 임직원의 교육수요

##### 1) 임직원교육 계획

□ 응답 중소기업들의 66.9%는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

○ 하지만, 응답 중소기업들의 20.5%는 기업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, 12.6%는 아예 임직원 교육계획이 없음

< 중소기업 임직원 외부교육계획 유무 >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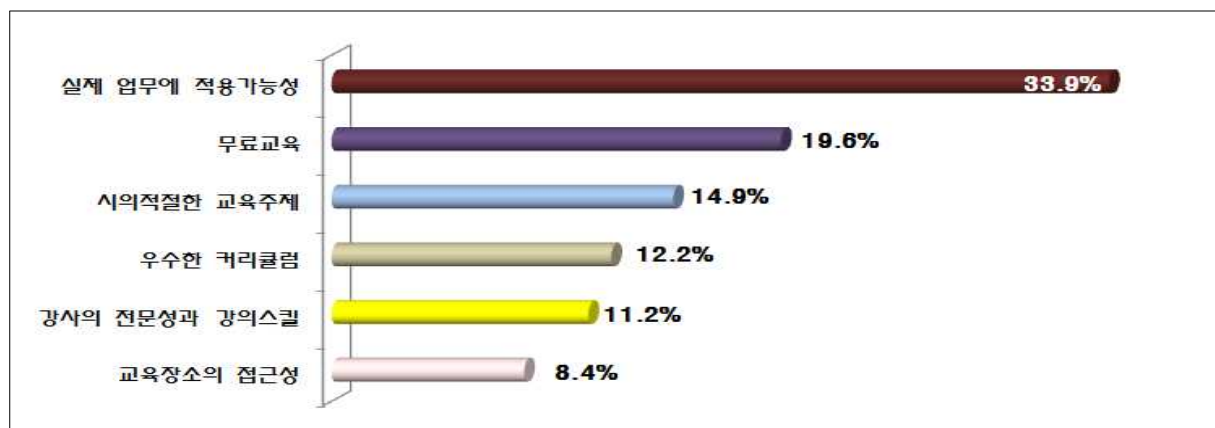
##### 2) 교육프로그램 선택 시 중점 고려사항

□ 외부교육을 이용할 때, 중소기업은 실제 업무 적용가능성, 주제의 적절성, 커리큘럼의 질적 수준 등 교육내용을 가장 중시하고 있음

○ ‘실제업무에 대한 적용가능성’(33.9%)의 응답률이 가장 높으며, 그 뒤를 이어 ‘무료 교육’(19.6%), ‘시의적절한 교육주제’(14.9%), ‘우수한 커리큘럼’(12.2%), ‘강사의 전문성과 강의스킬’(11.2%), ‘교육장소의 접근성’(8.4%) 順임

< 교육선택 시 중점 고려사항 >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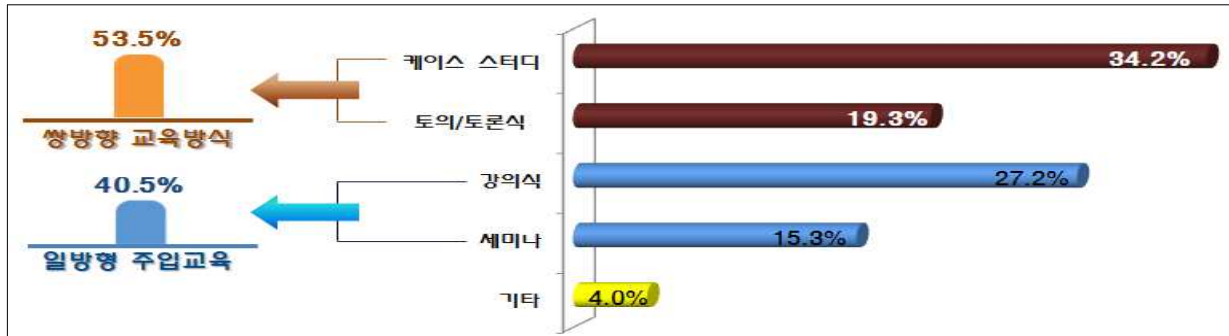
### 3) 효과적인 강의방식

□ 강의 진행 방식으로 중소기업들은 단순 지식전달보다 기업현장에 맞는 사례를 교육 참가자와 강사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토론식 교육을 선호함

○ ‘케이스 스터디’(34.2%)와 ‘토의/토론식’(19.3%) 등 쌍방향 교육진행을 절반이 넘는 53.5%가 요구하며, ‘강의식’(27.2%)이나 ‘세미나’(15.3%)는 40.5%에 그침

< 교육 시 효과적인 강의방식 >

(단위: %)



### 4) 희망하는 교육시간

□ 교육을 희망하는 시기를 주간단위로 보면, ‘수요일’과 ‘금요일’이 각각 25.2%로 가장 많았으며, 휴일인 토요일의 경우는 16.6%임

○ 약 4시간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, 선호하는 교육 시간대로는 ‘14시~18시’를 절반 가량(48.3%)이 응답하여 오후 시간대를 선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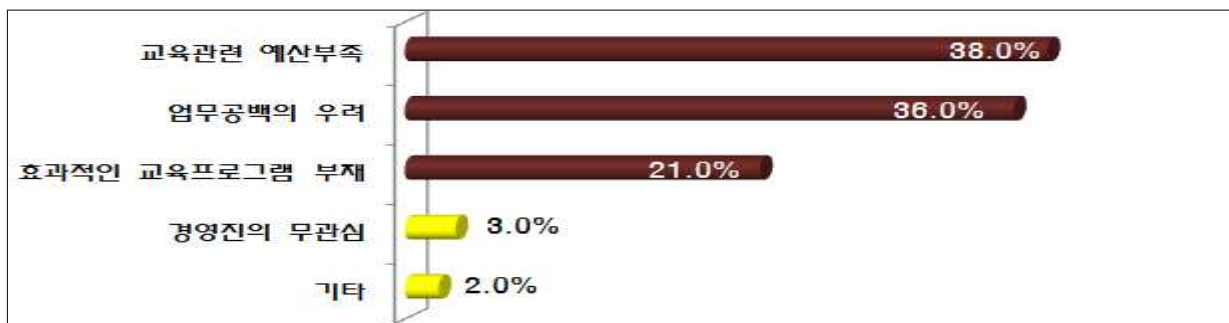
### 5) 외부교육 미활용 이유

□ 응답 중소기업들이 외부 교육과정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‘교육관련 예산부족’(38%), ‘업무 공백 우려’(36%)가 높은 응답비중을 보임

○ 그 밖에 응답 중소기업들은 ‘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부재’(21%), ‘경영진의 무관심’(3%), ‘기타’(2%) 순임

< 외부교육 미활용 이유 >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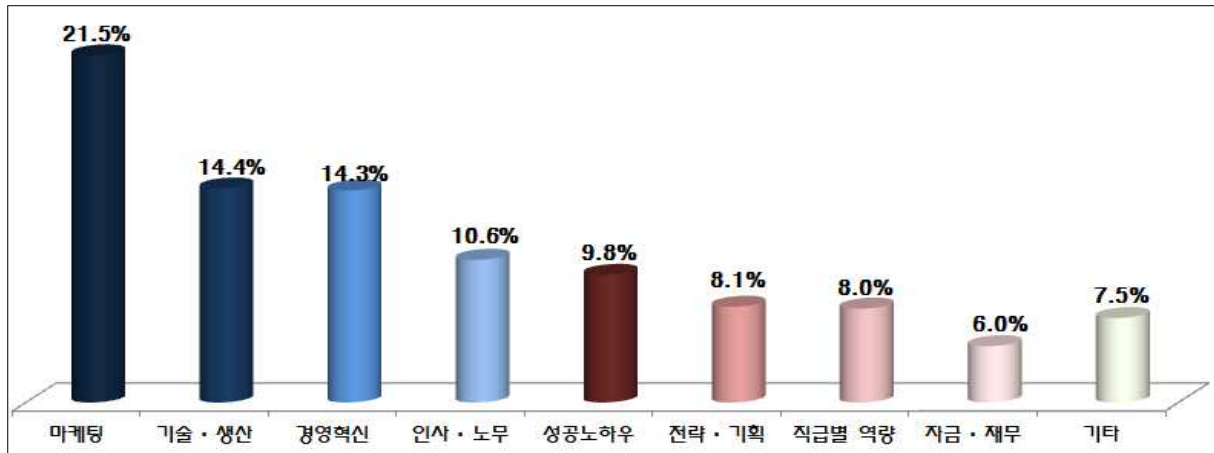
6) 전경련 경영자문단의 경영교육 희망분야

□ 응답 중소기업들은 전경련 경영자문단으로부터 받고 싶은 경영교육 분야로 ‘마케팅’(21.5%)과 ‘기술·생산’(14.4%)을 가장 선호함

○ 그 다음으로 ‘경영혁신’(14.3%), ‘인사·노무’(10.6%), ‘성공노하우’(9.8%), ‘전략·기획’(8.1%), ‘직급별 역량’(8.0%), ‘자금·재무’(6.0%) 順임

< 전경련 경영교육 희망분야 >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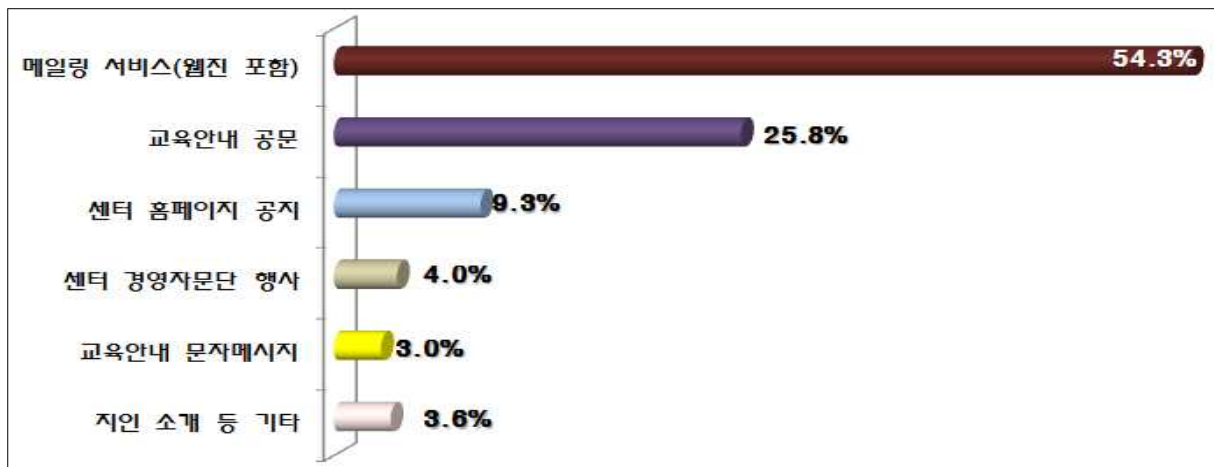
7) 교육정보 취득경로

□ 응답 중소기업들의 절반 이상(54.3%)이 전경련으로부터 ‘메일링서비스’를 통해 교육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남

○ 그 뒤를 이어 중소기업들은 ‘교육안내 공문’(25.8%), ‘센터 홈페이지 공지’(9.3%), ‘센터 경영자문단 행사’(4.0%), ‘교육안내 문자메시지’(3.0%), ‘지인 소개 등 기타’(3.6%) 順으로 응답함

< 협력센터의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취득 경로 >

(단위: %)



### Ⅲ 시사점 및 정책제언

#### 1. 조사결과의 시사점

□ 중소기업들은 기술혁신, 판로개척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 경기침체를 정면 돌파하려는 적극성을 보임

○ 최근 FTA 체결 확대, 내수부진 여파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고려, 이를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는 데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됨

\*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, 「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계획과 애로실태(2012.3)」 조사 결과 참조

○ 중소기업들은 기술혁신과 판로개척 등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‘자생력 확보’(61.2%)를 올해 중점 경영전략으로 삼고 있음

\* 기술혁신 34.3%(기술역량 강화 : 22.4%, 생산성 제고 : 11.9%)

\* 판로개척 26.9%(국내마케팅 확대 : 17.9%, 해외 진출 : 9.0%)

□ 중소기업들은 법·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정책보다 중소기업 자생력을 제1 중소기업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을 새정부에 희망함

○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 보호위주 정책보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앞섬

\* 중소기업 자생력 제고(37.3%) > 지원정책의 효율화(34.2%) > 중소기업 법·제도 개선(27.9%)

□ 중소기업 10곳 중 6곳(66.9%)은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교육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,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적당한 교육이 시행되지 못함

○ 중소기업의 33.1%는 ‘교육관련 예산의 부족’(38%)과 ‘업무 공백 우려’(36%) 등의 이유로 외부교육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

\* 자체교육 실시(20.5%) + 교육계획 없음(12.6%) = 외부교육 미활용(33.1%)

□ 중소기업의 절반가량(48.8%)은 교육선택 시, 기업 실정에 맞는 교육주제 등 교육컨텐츠의 실용성을 가장 중시함

○ 특히, 사례연구나 토론 등을 통한 실제 업무와의 연관된 교육을 고려함

\* 실제업무에 대한 적용가능성(33.9%) + 시의적절한 교육주제(14.9%) = 실용성(48.8%)

\* 쌍방향 실천교육(53.5%) > 일방형 주입교육(42.5%)

## 2. 정책제언

-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, 글로벌 시장 개척 등 중소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정부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함
  - (기술혁신 도모) 기술혁신 투자에 대한 성과측정을 강화<sup>3)</sup>하여 투자효과를 높이고, 중소기업 상호간의 기술교류 활성화 등 기술융합 활동<sup>4)</sup>을 통해 중소기업 전반의 기술혁신 분위기를 창출해야 함
  - (글로벌 시장 개척) ‘생산시설, 기업연차, 기업규모, 수출증감’여부에 따라 맞춤형 지원<sup>5)</sup>을 실시하는 한편,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R&D, 해외마케팅, 수출금융 등 전사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
- 중소기업에 대한 시혜적인 혜택보다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함
  -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, 성장성 등을 고려해 성장단계별로 적합한 시책을 수립하고,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 효과를 높여야 함
    - 단순히 재무중심의 온정주의적 평가관행에서 벗어나 ‘기술 및 사업성 중심의 선별적 지원’, ‘정책자금 목표제 도입’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
    - 또한, 지원기관별로 백화점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여 one-stop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기관별 사업내용을 분류, 통합하고 개별 지원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함
- 중소기업이 임직원 교육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관련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
  - 중소기업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부교육을 꺼리는 만큼(38%), 중소기업들의 교육수요를 조사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야 함
- 중소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의 실용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
  - 중소기업별 교육수요 조사를 사전에 실시하고, 이를 토대로 실제 업무에 적용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동시에 업무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시간을 설정하는 등 중소기업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

3) 산업연구원, 「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성과 결정요인 및 시사점(2013.3)」, ‘연구개발 투자집중도와 기술개발 성공률 등 일부 변수는 당초 기대되는 성과가 불분명하거나, 심지어 수익성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. 이는 일부 기술개발 성과의 시차효과(time lag)에 기인하기도 하나,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’

4) 산업연구원, 「중소기업 융합활동 실태분석 및 시사점(2012.9)」에서 기업 간 융합추진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, 중소기업의 87.2%(유효응답 수 327개)가 융합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

5) 한국무역협회, 「최근 중소기업 수출동향과 수출확대 방안(2013.2)」에 따르면, 기업규모가 크고, 생산시설 보유, 수출이 증가하는 기업일수록 ‘생산직’, ‘연구직’ 등의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됨



## < 별첨 >

### 「2013년 중소기업 경영환경 전망과 임직원 교육수요 조사」 결과(요약)

#### I. 2013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전망

##### ☐ 2012년도 대비 2013년도의 중소기업의 매출액 전망

(단위, %)

구분	늘어날 것이다			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다	줄어들 것이다			계
	많이 늘어날 것이다	조금 늘어날 것이다	소계		조금 줄어들 것이다	많이 줄어들 것이다	소계	
응답비율	18.5%	43.4%	61.9%	24.5%	10.3%	3.3%	13.6%	100%

##### ☐ 경영애로 타개를 위한 2013년도 중소기업의 중점 경영전략(복수응답)

(단위, %)

구분	기술혁신			판로개척			기타					계
	기술역량 강화	생산성 제고	소계	국내 마케팅 확대	해외 진출	소계	성장 로드맵 수립	재무 건전성 확보	건축 경영	우수 인력 확보	소계	
응답비율	22.4%	11.9%	34.3%	17.9%	9.0%	26.9%	12.9%	10.1%	10.1%	5.7%	38.8%	100%

##### ☐ 새정부에 바라는 제1 중소기업 정책과제

(단위, %)

구분	중소기업 자생력 제고			중소기업 지원정책 효율화			중소기업 법·제도 개선			기타	계
	기술개발 · 경영혁신	해외진출 지원	소계	차별화된 성장정책	중소기업 지원체계 정비	소계	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	하도급 공정질서 정비	소계		
응답비율	20.2%	17.1%	37.3%	22.4%	11.8%	34.2%	14.6%	13.3%	27.9%	0.6%	100%

## II.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수요에 대한 인식

### ☐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방식 추진계획

(단위, %)

구분	외부교육과정 활용	자체교육 실시	교육계획 없음	계
응답비율	66.9%	20.5%	12.6%	100%

### ☐ 교육 선택 시 고려사항

(단위, %)

구분	교육컨텐츠의 실용성			경제성	커리큘럼의 우수성	강사의 전문성/스킬	교육장소의 접근성	계
	시의적절한 교육주제	실제업무에 적용 가능	소계	무료교육/교육비환급				
응답비율	14.9%	33.9%	48.8%	19.6%	12.2%	11.2%	8.2%	100%

### ☐ 효과적인 강의방식

(단위, %)

구분	쌍방향 실천교육			일방향 주입교육			기타	모름/무응답	계
	사례연구	토의/토론식	소계	강의식	세미나	소계			
응답비율	34.2%	19.3%	53.5%	27.2%	15.3%	42.5%	1.5%	2.5%	100%

### ☐ 외부교육과정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

(단위, %)

구분	교육관련 예산 부족	업무공백 차질 우려	효과적인 프로그램 부족	경영진의 무관심	모름/무응답	계
응답비율	38.0%	36.0%	21.0%	3.0%	2.0%	100%

### ☐ 희망하는 경영교육 분야

(단위, %)

구분	마케팅	경영혁신	기술/생산	인사/노무	성공노하우	전략/기획	기타	계
응답비율	21.5%	14.3%	14.4%	10.6%	9.8%	8.1%	21.3%	100%

### ☐ 약 4시간의 교육과정인 경우, 희망하는 교육 시간(요일)

(단위, %)

구분	월	화	수	목	금	토	모름/무응답	계
응답비율	8.6%	6.3%	25.2%	25.2%	16.9%	16.6%	1.2%	100%

### ☐ 약 4시간의 교육과정인 경우, 희망하는 교육 시간(시간대)

(단위, %)

구분	9~12시	10~14시	14~18시	16~20시	모름/무응답	계
응답비율	22.8%	11.3%	48.3%	16.6%	1.0%	100.0%

### ☐ 센터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취득 경로

(단위, %)

구분	메일링 서비스	교육안내 공문	센터 홈페이지	센터행사	교육안내 문자메시지	모름/무응답	주변 인사소개	계
응답비율	54.3%	25.8%	9.3%	4.0%	3.0%	2.3%	1.3%	100.0%

## < 참고문헌 >

---

중소기업중앙회, “중소기업 경영상황 파악 설문조사” 조사결과(2013.3)

중소기업중앙회, 2013년 1월 중소기업인이 바라는 “중소기업대통령”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(2013.1)

산업연구원, 중소·중견기업의 글로벌화와 강소기업 육성방안(2013.2)

산업연구원,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성과 결정요인 및 시사점(2013.3)

산업연구원, 중소기업 융합활동 실태 분석 및 시사점(2012.9)

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,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계획과 애로실태(2012.3)

한국무역협회, 최근 중소기업 수출동향과 수출확대 방안(2013.2)